

보도시점 2023. 10. 5.(수) 09:00 배포 2023. 10. 5.(수) 09:00

‘23.9월 소비자물가는 3.7% 상승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3.3%로 전월 수준 유지

<‘23.8월 주요 물가 지표>

(전년동월비, %)	총지수	식료품에너지제외	농산물석유류제외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23.8월 → 9월	3.4 → 3.7	3.3 → 3.3	3.9 → 3.8	3.9 → 4.4	5.6 → 6.4

‘23.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7% 상승(8월 3.4%)하였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7월 물가 정점(6.3%) 이후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9월 오펙 플러스(OPEC+) 감산연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물가 기여도 8월 $\Delta 0.6\%p$ → 9월 $\Delta 0.2\%p$)과 기상 여건에 따른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 영향(물가 기여도 8월 $0.2\%p$ → 9월 $0.3\%p$)이 반영된 모습이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추세적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는 전년동월비 3.3% 상승하며 8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개인서비스 물가는 상승폭이 축소(4.3→4.2%)되면서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10월에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이어지겠지만, 수확기를 맞아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는 안정흐름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요 품목 수급 및 가격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bongseokshoi@korea.kr) 사무관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유원상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남기현 (khnam@korea.kr)

별첨 1

'23.9월 소비자물가동향 주요 내용 (상세)

1. 주요 내용

① [소비자물가] 국제유가 상승,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전년동월비 3.7% 상승(8월 3.4%)

(%)	'22.5	6	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8	9
전년동월비	5.4	6.0	6.3	5.7	5.6	5.7	5.0	5.0	5.2	4.8	4.2	3.7	3.3	2.7	2.3	3.4	3.7
전월비	0.7	0.6	0.5	△0.1	0.3	0.3	△0.1	0.2	0.8	0.3	0.2	0.2	0.3	0.0	0.1	1.0	0.6

① (농축수산물) 기상여건 영향으로 채소·과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며 전년동월비 3.7% 상승

* 세부 품목별 전년동월비(% 8→9월) : (농산물)5.4→7.2 (축산물)△2.7→△1.6 (수산물)5.8→3.5

② (석유류) OPEC+ 감산 연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전월비 4.0%, 전년동월비 △4.9%)

* 국제유가(두바이, \$/B): ('22.9)91 (10)91 / ('23.5)75 (6)75 (7)80 (8)86 (9)93 (10.3)91

③ (개인서비스) 외식물가 둔화흐름이 이어지면서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동월비 4.2% 상승(20개월만에 최저상승)

* 외식 물가 추이(%): <전년비> ('23.1)7.7 (2)7.5 (3)7.4 (4)7.6 (5)6.9 (6)6.3 (7)5.9 (8)5.3 (9)4.9
외식제외 물가 추이(%): <전년비> ('23.1)4.5 (2)4.4 (3)4.6 (4)5.0 (5)4.7 (6)4.1 (7)3.8 (8)3.6 (9)3.6

품목별 상승률(%)	전체	농 축 수산물	공업 제품	석유류	전기가스 수도	집세	공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외식	외식 제외
전년동월비	3.4	2.7	2.6	△11.0	21.1	0.2	1.7	4.3	5.3	3.6
'23.8월 (기여도, %p)		0.2	0.9	△0.6	0.7	0.0	0.2	1.3	0.7	0.6
전월비	1.0	5.3	1.2	8.1	0.1	0.0	0.5	0.2	0.1	0.3
전년동월비	3.7	3.7	3.4	△4.9	19.2	0.1	1.8	4.2	4.9	3.6
'23.9월 (기여도, %p)		0.3	1.2	△0.2	0.7	0.0	0.2	1.3	0.6	0.7
전월비	0.6	2.9	0.5	4.0	5.3	0.0	0.0	△0.2	0.2	△0.5

② [근원물가] 변동성 강한 품목들을 제외한 OECD 기준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동월비 3.3% 상승(전월비 △0.1%)

(전년동월비, %)	'22.5	6	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8	9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3.4	3.9	3.9	4.0	4.1	4.2	4.3	4.1	4.1	4.0	4.0	4.0	3.9	3.5	3.3	3.3	3.3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4.1	4.4	4.5	4.4	4.5	4.8	4.8	4.8	5.0	4.8	4.8	4.6	4.3	4.1	3.9	3.9	3.8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전년동월비 3.3% 상승(8월 3.3%)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로서,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로 458개 품목 중 식료품,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작성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전년동월비 3.8% 상승(8월 3.9%)

* 우리나라에서 활용 중인 근원물가로서, 전체 458개 품목 중 변동성이 가장 강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작성

3 [생활물가] 농산물·석유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4.4% 상승(전월비 1.1%)

* 전체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에 민감한 144개 품목으로 작성

** 생활물가지수(전년동월비, %, 8→9월): (식품) 4.7 → 4.6 (식품이외) 3.3 → 4.2

(전년동월비, %)	22.5	6	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8	9
생활물가지수	6.7	7.4	7.9	6.8	6.5	6.5	5.5	5.7	6.1	5.5	4.4	3.7	3.2	2.3	1.8	3.9	4.4

4 [신선식품] 신선과실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6.4% 상승(전월비 3.5%)

* 신선어개(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일 등 계절·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

** 신선식품지수(전년동월비, % 8→9월): (신선과실)13.2→24.4 (신선채소)△1.1→△5.7 (신선어개)6.0→3.4
(전 월 비, % 8→9월): (신선과실)10.0→5.0 (신선채소)16.6→4.3 (신선어개)△0.8→△0.6

(전년동월비, %)	22.5	6	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8	9
신선식품지수	2.5	5.4	13.0	14.9	12.8	11.4	0.8	1.1	2.4	3.6	7.3	3.1	3.5	3.7	1.3	5.6	6.4

2. 평가 및 대응

□ [평가] 9월 소비자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고 기상 여건에 따른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8월에 이어 3%대 상승

○ 변동성 강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OECD 기준 근원물가는 3.3%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반적 물가 둔화흐름 유지

⇒ 계절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부터는 물가 흐름은 다시 안정화 예상

▪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계속 반영되겠으나, 수확기 도래 등으로 농산물 가격은 점차 안정화될 전망

□ [대응] 물가 안정 흐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품목별 가격·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

* 배추 등 김장채소 비축물량 확대 및 적기방출,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10월말), 닭고기·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신속도입 등

- (농산물) 봄·여름철 기상재해 및 9월 잦은 강우 등으로 과일류와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수급이 불안정했으나, 추석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다. 다만, 생산이 감소한 사과는 가격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사과·배) 재배면적 감소와 봄철 기상재해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 (KREI 관측 : 전·평년 대비 사과 23.2%↓, 14.5%↓, 배 19.7%↓, 1.6%↓)하여 수급 불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사과 계약재배 물량 15천 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비정형과(못난이 과일)의 상품화 지원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배추·무) 9월은 출하량 증가(전년 대비 20% 내외) 및 김치 제조업체의 여름배추·무 수요부진 등 영향으로 소매가격이 전년보다 30% 이상 낮았다. 10월~12월에 생산되는 가을배추와 가을무 재배면적도 평년대비 각각 2.6%, 5.3% 증가하여 안정적 수급상황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배추는 기상재해에 따른 작황부진 시 수급불안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농식품부는 10월~11월 수급불안 시 정부 비축 및 농협 출하조절시설 저장 물량(4.2천 톤) 공급을 통해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양파)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이 감소(통계청 : 전·평년 대비 각각 1.6%↓, 17.0%↓)하였으나 해외 공급 증가 등으로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향후 김장철 및 단경기(다음해 1~3월) 등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국산 양파 비축 물량(5.8천 톤)을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 (시설채소)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활발하여 9월 중·하순 시설채소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특히 9월 하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오이·청양고추 등의 공급량이 감소하여 가격상승 폭이 커졌다. 10월은 아침 기온이 떨어지며 작물 생산에 변동이 커지는 시기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진청과 함께 안정적인 시설채소 공급을 위하여 시설 내 온·습도 관리 등 가을철 재배 기술을 중점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물) 공급 부족으로 닭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품목은 안정적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이 변수이다.
- (소고기) 9월 한우 공급량이 증가하여 도매가격(거세우)과 소비자 가격(1등급 등심)은 전년 대비 각각 7.3%, 9.7%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공급 증가에 따라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농식품부는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행사, 급식·육가공 등 원료 사용 지원, 수출 확대 등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돼지고기) 9월 돼지고기 공급량은 전년보다 1.4% 증가하였으나, 9월 도매가격은 추석 성수기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1.9% 상승하였다. 다만 국내산 삼겹살 등 소비자가격은 할인행사 등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연말까지 돼지고기 공급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도 전년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 (닭고기) 연초 AI,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종계 생산성 저하로 병아리 공급이 부족하여 9월 하순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11.8% 높은 수준(6,054원/kg)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계열화사업자의 병아리 추가 입식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육용 종란 수입 지원을 통해 병아리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 10월 말에는 닭고기 공급이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에도 계열화사업자의 병아리 공급 독려를 통해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계란) 9월 산란계 총 사육 마릿수와 6개월령 이상 사육 마릿수가 모두 평년 대비 5.1%, 1.4%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일일 계란 생산량은 평년 대비 2.8%(평년 9월 4,461만→ 2023년 9월 4,588만 개) 증가하여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KREI)이다. 다만, AI 발생 상황이 변수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산란계 협회 등과 협업하여 계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AI 특별방역기간(2023년 10월 ~ 2024년 2월) 운영을 통해 농장 차단 방역 강화 및 농장 간 확산 방지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